

## 지역정보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Local Informatization and the Role of Local Autonomous Entity.



이무영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교수

Lee, mu-young.

Ph.D Professor Electronics DPT.

Yeung Nam University

공업화사회는 대량생산 기술, 조직관리 기술, 경쟁시장의 발달 등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서, 인류에게 일찌기 체험할 수 없었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안겨 주었다.

공업화 사회의 시장경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양의 지식정보를 발생, 유통시키게 되었고 결국에는 지식정보의 이용과 관리능력이 사회의 모든 분야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 즉 정보화 사회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여기에는 정보의 처리와 유통을 담당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이렇게 태동된 정보화의 물결은 새로운 정보통신 욕구(Needs)를 발생하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결과는 다시 산업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과정

을 밟으면서 사회는 점차 고도정보화되어 가고 있다.

사회는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 사회활동의 효율화, 성에너지화가 성취되어 지금까지의 무절제한 공업화가 가져온 여러 문제점, 예를 들면 환경과 자원보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였고,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와 거기에 따른 상호 위화감, 소외감 등도 해소될 조짐을 보이게 하고 있다.

그 결과는 계층간, 지역간, 나아가서는 국가, 민족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켜, 마찰과 무질서로 인한 자연적, 문화적 자원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할 것이다.

즉, 공업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모함으로써, 비로소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전후의 황폐기에 서 출발하여 7-8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모든 산업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전자통신분야에 있어서는 가입전화수가 세계 8위권에 진입하고 있고 광 케이블은 국토전역에 포설되었으며 ISDN의 개통도 목전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통신망은 어디까지나 정보의 유통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정보활동의 주체는 사람인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과의 결여와 능력의 부족으로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회 각처에 유용한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고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해 줄 수단들이 정비되어 있는데도 사용자들의 소양부족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보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가 진전되면 사회의 모든분야에서 낭비와 비효율이 사라지므로 산업이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해 진다.

발전한 산업과 윤택해진 주민 생활은 더 고도의 정보화를 필요로 하게 되고 거기 따라 각종의 정보산업이 발전하게 되며 그것은 다시 산업사회로 피드백(Feed Back)되어 사회의 발

전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말하자면 정보화와 사회발전과는 서로 상승작용으로 발전해 나가는 소위 정보화의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 정보화 사슬의 시작점을 적절히 찾아서 발전의 도화선을 당겨준다면 정보화는 사회의 발전과 맞물려서 저절로 전진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보화는 물론이고 그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본래, 정보통신의 본질은 지식정보의 수발신에 관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의 초월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기간 통신망이 완비되면 정보의 전송에 관한 한, 지역사회와 중앙과의 거리는 없어지며 산업활동도 고효율화 되어 모든 분야에서 지역간의 격차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기간통신망이 첨단화되고 각종 뉴미디어서비스(Newmedia Service)가 실용화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으면서도 지방은 모든 면에서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국가의 모든 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에 유례를 볼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있다.

이것은 그간의 고도 성장의 결과로 생겨난 지역간 격차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현대적 정

보통신기반이 확충, 정비되어 왔기 때문에 해석될 수가 있다.

각급 기관이나 기업체가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면 모든 기업 관리 기능을 서울에 앉아서도 아무런 불편없이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불편한 지방에 입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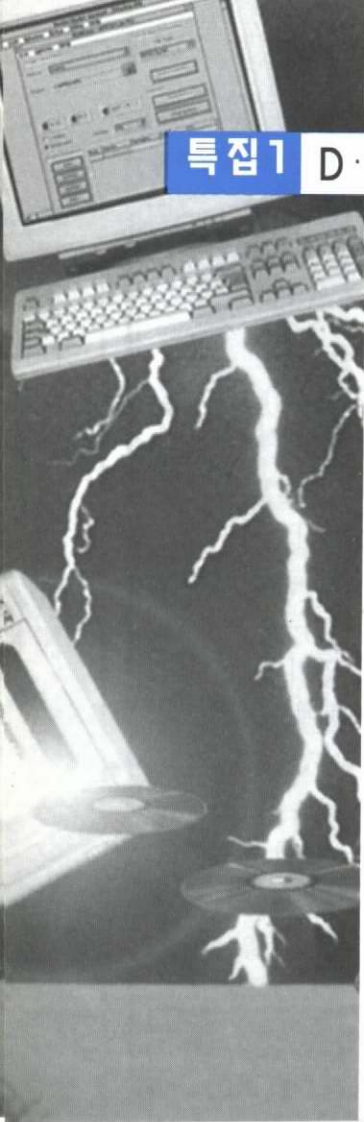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고급두뇌와 재원은 서울에 집중하게 되며 따라서 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서울에 위치하게 된다.

그 결과 전술한 정보화 사슬의 원리에 따라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은 발전이 가속되고 그 반면 지방은 정보화의 지연으로 더욱 낙후하여 지역간 격차를 벌려 놓게 된 것이다.

즉, 정보의 독점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정보분야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지역간 격차는 수도권과 지방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관내에서도 심각하다. 대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100대 1이 넘는 곳이 허다하다.

이것은 정보화의 측면에서도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는데 산업의 후진지역은 역시 정보화율도 저조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



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7-80년대에 외자까지 빌려서 건설해 놓은 고속도로가 내왕하는 자동차가 없어서 텅 비어있던 한때를 기억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개통 되었어도 지방의 경제가 낙후되어 서울-지방간을 운송할 물자가 없었던 것이다. 비어 있던 고속도로가 각종 차량으로 붐비게 되기까지는 지방의 각종 산업이 발전하여 수송물량이 증가하고 지방 주민들도 승용차를 가질 수가 있게 된 80년대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같은 논리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개통되고 광 케이블과 통신위성이 전국을 커버하게 되어도 지방의 정보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자동차가 없는 고속도로와 다름없이 되고 말 것이다.

즉, 건설해 놓은 첨단 정보통신망이 제대로 기능하여 우리사회의 정보화에 기여하게 되려면 수도권만이 아니고 전 국토의 모든 지방에서 활발히 정보가 생산, 처리되어 유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요즈음 제창되고 있는 지방화는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 사업의 지방화는 이미 지역 정보화라는 용어로 수년 전 부터 우리 귀에 익어있어서 일종의 유행어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와 절실성을 인식하고 있는 이는 의외로 적으며 더구나 그 중에 지역정보화를 위한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는 더욱 적다. 그 이유는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정보화와 산업간의 인연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다.

즉, 산업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정보에 대한 수요도 적은 까닭에 정보화에 대한 의욕을 지닌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지역은 지역정보화를 제창하지 않아도 정보화 사슬의 속성에 따라 정보화의 수요가 커서 저절로 정보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도 지역정보화는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긴요한 과제이며 지역사회의 경영과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분야이다.

특히,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가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 만큼, 경제적 영세성으로 인해 정보화への 니드(needs)가 없는 지역사회에 적절한 시드(seeds)를 투입하여 정보화를 자극함으로써 그 사회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은 이러한 약세의 지역사회를 관장하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이 될 것으로 본다.

지역 정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는 그 자체가 행정력과 예산으로서, 직접 해당 지역의 정보통신기반을 시설 정비하고 각종 뉴미디어를 도입 보급함으로써 관내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직접적인 역할과,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 그리고 각급 기업들이 그 생활의 향상과 기업활동의 확장에 따라 정보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관내의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적, 재정적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 사업화를 독려하는 간접적인 역할의 두가지를 들 수가 있다.

전자의 예로서는 주로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국토전반의 정보통신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성과 정비계획에 지방정부로서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과 종합개발계획의 차원에서 그 도입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들 수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행정체계를 최대한으로 정보화, 전산화하여 적절한 뉴미디어를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지방자치행정에 활용하고 민간에게도 공개하여 각급 기관이나 기업체의 기업활동에 효용토록 하는 역할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역할은 이미 정보통신부 주도로 전국의 지역정보화를 지원할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지역내의 행정업무의 정보화는 현재도 행정전산망으로 대표되는 대형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지방자치 단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금세기중으로 첨단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후자의 간접적역할은 민간차원의 정보화 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인데, 이 부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서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재정상의 문제이다.

우선, 지역사회의 정보화 의욕을 고취시키려면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뉴미디어서비스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업을

도모하는 정보통신 산업체에게 적절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내에의 입지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인·허가업무의 간소화와 세제상의 특혜, 금융상의 편이제공과 알선 등 행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하고, 각급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기술인력 육성계획에도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러한 정보통신 시드에 고무되어 이 지역에 입지코저 하는 각급 산업체나 기관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문제이다.

특히 교통과 주거환경은 정보





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유는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사회활동에서의 거리와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까닭에 기업체나 전문인력, 나아가서는 자본까지도 생활환경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동해 버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낙후된 지역을 지역 정보화를 통하여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최초 정보화를 위한 적절한 시드의 투입이 있어야 하고, 그 후속사업으로서 교통망과 주거환경 등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어져야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영세한 경제기반을 지닌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재원의 염출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정부를 비롯한 상급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차원의 기금조성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분야의 사업은 아직 실험단계에 있는 것이 많은 만큼 수익사업으로서 상당한 리스크(Risk)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쉽게 착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전반의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 내의 거점지역 수개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모범적인 정보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다.

다행히 정보통신기반의 속성은 교통기반과 같이 상위지역에서 저위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특징임으로 정보화사업의 여타 지역에서의 신속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 파급효과속에는 중점 정보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의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 수익성의 확인을 통한 정보통신 사업자들의 자진 참여, 뉴미디어의 효용을 확인한 여타 산업체, 기관들의 정보미디어 이용의 증대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민간차원으로 부터의 정보화가 진전된다는 것을 뜻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준다.

이 중점지역 정보화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장 효과적이며 다른 지역에서의 파급효과가 큰 뉴미디어(Newmedia)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공단지역에는 기술정보시스템, 지역 산업고도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는 첨단산업형 뉴미디어를, 관광 지역에는 관광정보시스템, 컨벤션(Covention) 관리시스템 등으로 되는 관광레저형 뉴미디어를, 농어촌 지역에는 어업정보시스템, 어업기술시스템, 영농기술정보시스템, 시황출하시스템 등을 그리고 도시주변의 거주단지에는 지역정보시스템, 행정창구시스템, 생활안전시

스팀 등으로 구성되는 커뮤니티 타운(Community town)형을 도입하면 성공률도 높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Impact)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다분히 기업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실패로 인해 정보화 사슬의 도화선이 되지 못하고 조기에 소멸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분야는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이다.

이 분야는 단시일에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장차의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믿을 수 있는 투자가 된다.

우리나라의 오늘날 발전은 모두 5-60년대에 배를 주려 가면서 교육에 투자한 산물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우수한 정보화관련 분야 졸업생들이 지방에 대거 진출하여 낙후지역의 정보화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는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방대학과 연구소를 확충토록 지원하여 그 지방출신자가 그 지방에서 정보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이나 연구소도 다른 분야 못지 않게 질적, 양적으로 수도권집중이 되어 있으며 그 격차는 벌어지기만 하

고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 못지 않게 이 분야에도 지방화를 추진하여 우수한 인재가 대거 지방대학에서 정보화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후에는 낙후되어 있는 출신지역의 정보화에 이바지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간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본다면 산업사회의 형성과정에서 격차가 생긴 것은 정보화작업으로서 그 격차가 심화되며 심지어는 정보의 독점이나 권익화로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정보의 소외계층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지역정보화 추진은 정보분야에서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절대적인 과제로 꼽을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역할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더구나 다가오는 21세기는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보화를 조속히 효과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